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1.16-18)

1. 액체형 불화수소 수출 허가 관련

□ [동향]¹⁾

- 일본 정부는 최근 화학소재기업 스텔라케미파가 생산하는 액체형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통보
 -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로 알려짐.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닛케이의 “일본 측에서는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을 승인하면,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태도를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등의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다”고 보도²⁾

2. 수출규제 철회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“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” 방침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, 이를 미국에 통보³⁾
 - 일본 정부는 ‘수출관리 강화’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,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

3. 한일 국방장관 회담 관련

□ [동향]

-
- 1) 「일본,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…3개 규제 품목 모두 '통과」 『연합뉴스』 (2019. 11. 16), , 「液体フッ化水素の輸出許可、韓国報道。」 『日本経済新聞』 (2019. 11. 18), 「韓国：液体フッ化水素輸出 日本が許可報道」 『毎日新聞』 (2019. 11. 18), 「液体フッ化水素 日本、輸出許可か 韓国報道」 『静岡新聞』 (2019. 11. 18).
 - 2) 각주 1의 닛케이.
 - 3) 「"日, 지소미아 연계 '韓수출규제' 철회 않기로"...美에 입장 전달」 『연합뉴스』 (2019. 11. 17)

- 정경두 국방부 장관, 고노 일본 방위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장관급 회담을 실시하고 지소미아에 대한 의견을 교환4)
- 회담에서 고노 방위장관은 “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, 한미일 연합은 매우 중요하다”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
- 이와 관련하여 정 국방장관은 “다양한 문제로 한일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.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국 관계 및 방위협력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”이라고 하였지만, 협정의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것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NHK의 보도에 의하면, 일본 정부는 “협정의 종료는 불가피하다”는 전망을 하면서도, 협정의 종료 직전까지 현명한 대응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.5)
-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 재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, 수상관저의 한 간부는 “일본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. 수출규제 문제는 당국자끼리 제대로 하면 된다”며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(NHK)6)

4. 상장기업 영업실적 감소 관련

□ [일본 기업 동향]7)

- 큐슈·오키나와 지역 상장기업 54개사의 4~9월 경상이익은 전년동월대비 약 10% 감소(1,478억엔)하였는데, 주로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제조업의 생산 감소, 운수 및 에너지 부진 등에 기인

4) 「日韓防衛相會談 G S O M I A破棄見直し要請も平行線に終わる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1. 17).
 「日米韓防衛相會談 河野防衛相 G S O M I A破棄見直し再度要請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1. 17).

5) 「日韓G S O M I A 韓国側に対応求めながら出方を待つ方針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1. 18).

6) 「G S O M I A、譲れぬ日韓 23日失効、米加えた防衛相會談も平行線 水面下、解決探る声も」 『朝日新聞』 (2019. 11. 18).

7) 「九州・沖縄の上場52社、過半が経常減益、4~9月、製造業や運輸不振、米中摩擦や日韓関係悪化で。」 『日本経済新聞』 (2019. 11. 16).

- 이중 JR 큐슈의 경우,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방문객이 급감한 것이 영업실적 저하의 주된 요인을 보인다고 닛케이는 분석

- JR 큐슈가 운영하는 고속선 'BEETLE'의 경우, 7월 이후 이용객이 전년 대비 최대 70% 감소하였으며, 서일본철도도 한일 관계 악화로 호텔사업에서 약 1억엔 정도 수입이 감소함.